"광주 민간공항 전남 이전은 '연립 방정식'"

이용섭 시장 "너무 얽힌 것은 가위로 잘라야"…전남도 협력 요구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 공항을 전남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문제를 '연립 방정식'에 빗대 사실상 전남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이 시장은 16일 오전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간 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공항 이 전을 유보하라는) 시민 권익위원회 권고를 따를 거냐, 약속대로 2021년까지 옮길 거냐는 단순한

일차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 방정식"이라며 "시민 80%가 군 공항과 연계해 민간 공항을 보내야 한다 는 설문 결과에 상생의 길도, 공동 번영의 길도 있

이 시장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해결 안 될 때가 많다"면서 "너무 얽힌 것은 가위로 자르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따라 협약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면 서도,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2018년 8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협약대로 내년에 공항을 이전하 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전남도, 무안군과 새로운 협약을 의미한 것이라는 해석도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면서 민간 공 항도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광주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도 등이 군 공항 이

전 지원이나 협력을 약속한다면 민간 공항을 무안 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선 의 방안을 찾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민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광주 공항 이전 계 획 유보를 권고받았으며, 한 달 내에 답변을 내놓 아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은 차세대 에너지원 해상풍력발전 최적지"

곽성조 에너지기술연 제주센터 팀장 "풍부한 풍속·적절한 수심 등 갖춰"

"전남의 해상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해상풍력발전의 최적지입니다."

지난 4일 찾아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 글 로벌 연구센터에서 곽성조 풍력연구팀장은 민선 7 기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안 해상 대규 모 풍력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신안과 제주의 해 상은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최적지로 충분한 경쟁 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통상 수심 50m 내외 지역에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바닥에 하부구 조물을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조건에 신안 해 상이 부합한다는 게 곽 팀장의 설명이다.

곽 팀장은 "동해의 경우 바람이 강하지만 수심이 깊어 해상풍력이 들어서기 어렵고 남해는 수심이 옅지만 바람이 약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며 "반면 전남의 경우 7m/s 이상의 풍부한 풍속과 적절한 수심 등 해상풍력을 위한 최적의 입 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곽 팀장은 그러면서 전남의 경우 해상풍력발전 이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평 가했다.

해상풍력발전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원전과 화력발전을 대체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 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제주 월정에 국내 최 초 해상 풍력 발전소를 준공했으며, 탐라 해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에서 지난 4일 전남도 공동취재단이 해상풍력발전 기술 현황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공동취재단

풍력발전(30MW)을 비롯해 육·해상 20개소에서 269MW(119기) 규모의 풍력발전소가 가동 중이 다.

민선 7기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48조원을 투입, 신안 해상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8.2GW는 원전 8기 와 맞먹는 규모로 광주·전남이 사용하는 전력을 웃

전남도는 발전단지 조성, 풍력발전기 부품 제조 등 일련의 과정에서 450개 기업을 육성하고 12만 개의 전남형 상생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세웠

해상풍력단지 조성 과정에서 어민 피해를 최소 화하고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방침에 따라 신 안군, 신안수협, 새어민회(최대 어민단체) 등 4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면 서 어민 수용성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 공동취재단

'하수도정비관리지역' 공모 전남도 8개 읍·면 선정

올해 '환경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에

전국 10개 시·도에서 참여한 26개 지역 중 전남 의 6개 군에서 31%인 8개 지역이 차지해 국비

Passion

www.kwangshin.ac.kr

110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하 수관로 정비, 빗물 저류지 및 빗물 펌프장 설치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국비(70%)를 지원받아 도

이번 선정된 구례, 담양, 함평 등 6개 군 지역은

수관로 통수능력이 부족해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 이다. 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1.68 km의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 펌프장 8개소 증설 등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6개 군 8개 읍•면에서 진 행되며, 완도 완도읍과 함평 학교·월야면, 무안 망 운면, 영광 영광읍, 담양 담양읍, 구례 구례읍·마산

치되며, 지역별로 담양 3개소를 비롯 완도·함평 각 2개소, 구례군에 1개소가 구축된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공모로 전 남의 많은 지역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신 규 지정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 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 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광주시, 17일부터 예산소진때까지

광주시는 '2020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 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 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주택금융 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광주은행은 대출실행 및 관리를 담당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인 무주 택자로서 대출실행일 기준 만 19~39세 이하의 대 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및 창업자 중 연소 득조건 해당자이다. 연 소득 기준은 본인 4500만 원 이하, 취업준비생(부모합산) 7000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 또는 1억5000만원 이하로, 광주시에서 대출이자 2.5% 중 2%를 지원 해 선정자는 연 0.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17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로 광주시 홈 페이지를 통한 서류접수순으로 서류심사 및 대출 심사가 진행되며, 서류심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실행자에 한해 이자 지원이 확정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전환

상담 등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는 19일부터 27일까 지 열리는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를 비대면 온라 인 수출(화상)상담회로 전격 전환해 개최한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공식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비대면 상담회는 해외바이어가 상담 대상 검색, 상담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을 통해 전략적인 상담이 가능토록 구현해 해외 마케팅과 수출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초보·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미국·독일·일본·베트남 등에 있는 해외마케팅센터 24곳을 활용해 해외바 이어 141여명을 발굴했다. 또한, 지역기업 118여 곳이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참여 신청을 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종합 상 담상황실을 운영해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 간의 상담 매칭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광융합산업 제품 400억원 이 상 구매 계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최기간 이후에도 상황실을 연중 상시 운영해 광융합 기업 의 수출판로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Vision

Truth and Art Not a Report of the Art of the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전국 최다…국비 1102억 확보

서 전남도내 8개 읍•면이 최종 선정됐다.

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침수방지 사업으로 펼쳐진다.

면 등이 해당된다.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입학문의 ▶ 062) 605-1115 대 학원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과(M.Div.) 56 석사 성경연구학과(Th.M.) 10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 전형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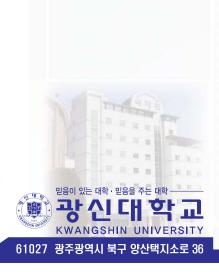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원서접수: 2020. 11. 17(화) ~ 25(수) ·전 형 일: 2020. 11. 30(월) 오후 2시 30분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전 형 일: 2020. 12. 11(금)/12(토)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M.Psy.) 10 10 재활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학과(M.S.W.)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